

# Morning Meeting Brief

## THE GLOBAL / Global Daishin View

### [Global Daishin View] 2026 년 8 월 2 주차

- 美 7월 CPI 발표 예정, (+)실질정책금리 전환 이후 연속성 확인 시 투자심리 개선되기 시작할 것
- 코노코필립스, 기존 CFO → 신입 CEO로 경영진 내부 교체, 불확실성 완화 기대. 프로로지스, 영국 리츠 SEGRO 인수로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
- 이번 주 해외 투자 포커스: [신흥국전략] Global X China Robotics and AI ETF, [미국주식] 코노코필립스, [글로벌리츠] 프로로지스

글로벌전략 문남중, AI Engineer 조재운, 글로벌리츠 김다운

## Strategy

### [반전의 시작] 미워도 다시 한 번 반도체. 반전을 시작한 Non-반도체와 KOSDAQ

- 마지막 조정 국면을 거친 반도체, 반도체 + 저평가주 동반 상승추세 예상
- KOSPI 6,500~6,800선 안착 여부가 관건, 외국인 수급 변화에 주목
- KOSPI 6,000선대 등락은 비중확대 기회, KOSPI의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퀀틴전시 플랜] 시동 걸린 코스닥, 다시 올린 매수 사이드카

- 대형 반도체 숨 고르기 국면, 코스닥·소외주로 수급 확산
- 미국 고용 부진이 낮춘 금리 부담, 중동 불확실성 재확대
- 실적대비 저평가, 수주 모멘텀으로 업종별 차별화 장세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Global Strategy

### [THE GLOBAL 월간 증시 전략 / 26.8월] 경계 속, 긍정적 시그널 주목

- 8월, 여전히 매크로 및 통화정책 영향권. 6~7월과 달라진 점, 긍정적 시그널 포착. 사상 최고치 경신 중인 미국 증시 흐름 긍정
- 6~7월 증시 변동성 타개를 위한 전제조건. 미국-이란간 종전 MOU 복원
- 그래야만 펀더멘탈, 변동성 축소 역할에서 방향성 결정 역할로 전환. 동 조건 부합 시, 4/4분기를 염두에 둔 비중확대 기회 탐색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 부동산

### [주택시장] 부동산 세제개편 영향: 늘어나는 매도물량만큼 줄어든 임대물량

- 핵심: ① 실거주강화, ② 공제한도제한, ③ 양도세 혜택 조기일몰
- 영향: 실거주 강화로 고가시장 임대료 상승 지속, 40억원 이상 주택 양도/보유 세 부담 증가, 전반적인 매도물량 출회 가능성 有
- 한계: 임대 공급/운영의 체계/주체/자금유입 유도하는 개편 부재

배상영 Ph.D. sangyoung.bae@daishin.com

[방위산업] 조달 방식의 변화 그리고 방위산업의 변곡점

- 여전히 유효한 투자포인트, 저렴해진 Valuation
- 앙카라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된 공동조달 및 생산
- 방위산업체 멀티플 리레이팅을 전망

최정환, jeonghwan@daishin.com

[2Q26 Review] 비에이치: 이익 성장은 변화 없다! 삼성의 로봇 사업에 참여!

- 3Q26 영업이익은 371억원(371% qoq)으로 실적 개선 전망
- 삼성 및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로 수혜 예상, 실적 확대 구간에 진입
- 삼성 및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 대상으로 공급 추진, 밸류에이션 저평가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2Q26 Review] 심택: 이익 성장은 변화 없다! 삼성의 로봇 사업에 참여!

- 영업이익은 2Q26 629억원(239% yoy)으로 컨센서스 상회, 호실적
- 영업이익은 3Q26 767억원(22% qoq) 추정, 이익 확대 구간에 진입
- 소캠2 매출 확대, MSAP 및 비메모리 패키지 비중 증가, 최선호주 유지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2Q26 Review] 롯데렌탈: 렌탈 경쟁력은 수익성 확대!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

- 2Q26 영업이익은 846억원은 9.6%(yoy)가 증가, 수익성 확대
- 3Q26 영업이익은 933억원으로 10.2%(qoq) 증가 추정
- 렌탈 시장에서 점유율 증가, 중고차 활용으로 수익성 확대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2Q26 Review] 한전KPS: 지나간 실적보다 앞으로의 회복을 바라볼 때

- 2H26 성장성 회복(12차 전기분, K원전 수출) 모멘텀, 배당수익률 5.0%
- 2Q26 영업이익 436억원(-33.5% YoY), 컨센서스 하회
- 3Q26 영업이익 505억원(+6.3% YoY), 4Q26 571억원(+197.6%) 전망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 THE GLOBAL

## Global Daishin View

글로벌전략 문남중  
AI Engineer 조재운  
글로벌리츠 김다은

## 2026년 8월 2주차

- 美 7월 CPI 발표 예정 (+)실질정책금리 전환 이후 연속성 확인 시 투자심리 개선되기 시작할 것
- 코노코필립스 기존 CFO→신임 CEO 경영진 내부 교체, 불확실성 완화 기대, 프로로지스, 영국 리츠 SEGRO 인수로 성장 동력 확보
- 주식 포커스: Global X China Robotics and AI ETF, 코노코필립스, 프로로지스

### [글로벌전략] 12일 美 7월 CPI/근원 결과,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가져올 지 여부 확인해 줄 것

12일 美 7월 CPI 발표 예정. 지난달 연준의 정책금리(3.75%)를 하회하는 결과치(3.5% YoY)를 보여주면서, 통화긴축 여부 및 증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실질정책금리는 (+) 전환. PCE에 앞서 발표되는 지표라는 점에서 26일 발표되는 7월 PCE 결과도 동일 수순을 밟아 나갈 것. 6~7월 기간 조정 후, 상승을 도모하는 현 미국 증시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 2달 이상의 연속성 중요. 7~8월, (+)실질정책금리 연속적 확인 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심리가 개선되기 시작할 것

### [신흥국전략] Global X China Robotics and AI ETF: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MSCI 중국 전종목지수' 편입

중국 최대 D램 제조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長科技CXMT 68825.SH)가 MSCI 중국 전종목지수(MSCI China All Shares Index)에 편입. MSCI는 공시를 통해 CXMT가 IPO 신규 상장에 따라 MSCI 중국 전종목지수에 편입되며, 8월 10일부터 공식 적용된다고 밝힘. 'MSCI 중국 전종목지수'는 A주·홍콩·해외 상장 중국 기업 등을 지수 구성종목에 포함시켜, 중국 기업 주식 시장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 하도록 설계된 지수

### [미국주식] 코노코필립스(COP): [코노코필립스] CEO 라이언 랜스 은퇴, CFO 앤디 오브라이언 승진 확정 - 확장 전략 연속성의 첫 시험대

최고경영자 라이언 랜스 은퇴, 재무책임자 앤디 오브라이언이 후임으로 승진 확정. 손익분기 유가를 배럴당 30달러대로 낮추는 전략 설계자가 최고경영자 등극, 연속성 우려 완화. 주가는 예상이익의 11.9배로 부담 낮은 구간, 경영진 교체는 불확실성 완화 요인. 신임 최고재무책임자 인선과 이익 45% 주주환원, 중동·LNG 확장 지속 여부 확인 필요.

### [글로벌리츠] 프로로지스(PLD): 대형 M&A로 유럽 물류 플랫폼 확장

프로로지스는 영국 1위 리츠 SEGRO를 188억달러에 인수 합의, 27년 상반기 인수 완료 예정. SEGRO는 유럽 핵심지역에 1.17억sf 물류자산을 보유한 유럽 대표 물류리츠 → 인수 후 PLD의 유럽 운영면적 +47%, land bank +126% 확대. 특히, SEGRO가 확보한 약 3GW 규모 데이터센터 전력부지를 편입 → PLD 기존 5.8GW 전력 파이프라인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추가 개발기회 확보. 유럽 핵심 물류입지와 데이터센터 전력을 한 번에 확보하며 중장기 성장 가속 기대.

## 미워도 다시 한 번 반도체. 반전을 시작한 Non-반도체와 KOSDAQ

- 마지막 조정 국면을 거친 반도체, 반도체 + 저평가주 동반 상승추세 예상
- KOSPI 6,500~6,800선 안착 여부가 관건, 외국인 수급 변화에 주목
- KOSPI 6,000선대 등락은 비중확대 기회, KOSPI의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

### 마지막 조정 국면을 거친 반도체, 반도체 + 저평가주 동반 상승추세 예상

8월 글로벌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KOSPI 차별적 약세 전개. 7월 31일 17.91% 대폭등에 따른 되돌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샌디스크 실적 가이드선 쇼크, 엔비디아 HBM 사양 하향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추가 약세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월초 효과 때문**. 샌디스크 실적 가이드선 쇼크는 **시장의 기대, 눈높이 조정 과정으로 판단**. 엔비디아 사양 하향 조정은 SK하이닉스에 악재일 수 있지만, 삼성전자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

7월 한 달 동안 AI, 반도체 업황/실적 불확실성에 반도체 주가와 KOSPI 지수 레벨다운 상황에서 **마지막 조정 국면으로 판단. 9월 금리인상 우려 완화와 주요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및 반도체 가격 상승을 통해 반도체 업황/실적 우려는 진정되고, 반도체, KOSPI 주가와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 전개 예상**. 이로 인해 과도했던 반도체 쏠림 현상이 빠르게 해소되었고, 디레버리징도 충분히 소화. 8월 2주차부터는 **반도체 + 실적대비 저평가주 주도의 상승추세 전개 예상**

### KOSPI 6,500~6,800선 안착 여부가 관건, 외국인 수급 변화에 주목

1)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쏠림 현상은 5월 19일 ~ 6월 22일뿐. 당시 KOSPI(+25%)를 Outperform한 업종은 IT하드웨어(86.8%), 반도체(46.3%). 24개 업종 Underperform, 20개 업종이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하지만, 월간 수익률 순위를 보면 **반도체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시기별로 다양한 업종이 동반 강세를 기록**

2) 금융투자의 매매패턴도 변화. 5월, 6월 금융투자는 반도체, IT하드웨어, 상사/자본재(지주사)를 집중 매수했지만, **7~8월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24개 업종 순매수**

3) **비반도체 업종의 수출 호조, 실적 개선 가시화도 긍정적**. 분기별, 연간 영업이익 전망도 18 ~ 21개 업종 상향 조정 중. 낙폭 과대이자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에 위치한 **반도체, IT하드웨어, 소매(유통), 보험, 자동차, 상사/자본재, 조선, 2차전지** 등 주목

**KOSPI 6,500 ~ 6,800선대에서 안착 여부가 관건**. 6월 22일 고점대비 하락폭의 38.2% 되돌림 수준이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의미있는 분기점은 6,500 ~ 6,800선대. 하락 돌파점 구간도 6,400 ~ 6,650p에 위치. 동 지수대 **안착에 성공할 경우 1차적으로 선행 PER 7배 수준인 8,500선, 이후에는 8배 수준인 9,700선까지 회복 가능**. 26년 Target KOSPI 9,300선. 현재 수급 주도권은 외국인이 쥐고 있는 상황. 외국인 수급 변화에 주목

### KOSPI 6,000선 등락은 비중확대 기회, 핵심은 견고한 경기/실적 상승 사이클 놀릴대로 놀려있는 KOSPI라는 스프링의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

8월 KOSPI 변동성 확대 국면에도 KOSDAQ은 4거래일 연속 상승. KOSPI 8월 -5.10%에 반해 KOSDAQ은 +10.98%. KOSDAQ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은 6월 말부터 시작.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속에 한국 국고채 금리 고점 통과로 KOSPI대비 KOSDAQ 상대강도 저점 통과. 이후 KOSPI 급락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던 상황에서 **국고채 3년 물이 7월 24일 고점으로 하락 반전. 당시 KOSDAQ 선행 PER은 16.61배, PBR은 2.19배로 고점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밸류에이션 부담 크게 완화**

여기에 KOSDAQ 승강제, 프리미엄지수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이슈 부각. 승강제 프리미엄 심사 축(보도 기준: 실적·성장상·재무건전성·지배구조)을 제시한 상황에서 당사에서 **확정 데이터로 근사한 선별 종목에 반도체 소부장, 기계, 2차전지는 물론, 제약/바이오도 다수 포진. KOSDAQ 대표주들의 반등 탄력 강화**

## 시동 걸린 코스닥,

## 다시 올린 매수 사이드카

- 대형 반도체 숨 고르기 국면, 코스닥·소외주로 수급 확산
- 미국 고용 부진이 낮춘 금리 부담, 중동 불확실성 재확대
- 실적대비 저평가, 수주 모멘텀으로 업종별 차별화 장세

## 대형 반도체 숨 고르기 국면, 코스닥·소외주로 수급 확산

대형 반도체의 숨 고르기 장세가 지속. 주말 사이 애플이 중국 CXMT의 메모리 칩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불안정한 반도체 투자심리를 재차 위축.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0.4%), 샌디스크(-3.7%), 웨스턴디지털(-3.8%) 등 메모리 업종 약세 전개한 점도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 한편,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로 약 7%대 급등했고, 7월 29일 저점 630.99pt 대비 +35.4% 상승하며 아웃퍼폼 뚜렷.

코스닥은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던 5~6월에도 부진했던 만큼,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집중. 반도체 소부장과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강세 뚜렷.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주성엔지니어링(+13.3%), 원익PS(+11.4%)

**코스닥 제약/바이오:** 알테오젠(+14.1%), 삼천당제약(+14.6%)

## 미국 고용 부진이 낮춘 금리 부담, 중동 불확실성 재확대

미국 7월 비농업 고용은 -2.3만명 감소하며 예상치 10만명을 크게 하회. 다만 4~5월 고용이 강했던 데 따른 반작용과 작년에도 나타난 지방정부 일자리 감소를 고려하면, 펀더멘털 우려는 제한적.

그럼에도 예상치를 하회한 고용지표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완화. CME FedWatch 기준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55.0%로 확대.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도 각각 4.18%, 4.65% 수준으로 소폭 하락하며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확대.

반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은 재차 후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합의가 없더라도 호르무즈 통항이 보장된다면 전쟁을 끝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란은 호르무즈 개방 조건을 상향. 여기에 후티 반군의 사우디 정유시설 및 UAE 선박 공격과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 계획 거부까지 더해지며 중동 불확실성 확대.

## 실적대비 저평가, 수주 모멘텀으로 업종별 차별화 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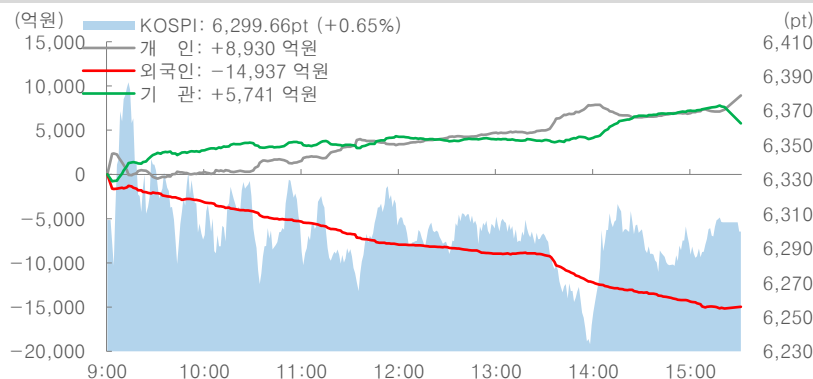
반도체 쉬어가며 업종별 순환매. 실적대비 저평가, 수주 모멘텀으로 차별화 뚜렷.

**반도체:** 삼성전자(-0.4%), SK하이닉스(-0.1%), 한미반도체(+6.9%)

**조선/엔진:** HD현대중공업(+5.1%), 한화오션(+5.6%), 한화엔진(+9.3%)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5.0%), LIG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11.1%)

##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Global Strategy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ng.moon@daishin.com

## 경계 속, 긍정적 시그널 주목

- 6~7월과 달라진 점, 긍정적 시그널 포착. 사상 최고치 경신 중인 미국 증시
- 6~7월 증시 변동성 타개를 위한 전제조건. 미국-이란간 종전 MOU 복원
- 동 조건 부합 시, 4/4분기를 염두에 둔 비중확대 기회 탐색

**[투자환경] 8월 글로벌 증시, 여전히 매크로 및 통화정책 영향권(물가, 금리, 긴축). 긍정적인 시그널도 포착, 연속성을 가지는지가 중요**

6월 BOJ, ECB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통화 긴축 부상, 7월 이란 전쟁 확전에 이어 7.23일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로 위험 선호 심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매크로 환경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5월 당시, 6월부터 3/4분기 글로벌 증시가 쉬어갈 수 있다고 본 배경에는 5월 발표된 미국의 4월 물가(PCE 3.8% YoY)가 정책금리(3.75%)를 역전하면서 앞으로 물가 및 금리 상승 환경을 통해 위험 선호 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즉 (-)실질정책금리 국면이 도래한 것이다. 글로벌 증시는 이를 반영하여 6~7월 조정 기간을 거쳤지만, 높은 수준의 장기 금리, 물가 부담, 금리 불안은 상존하고 있어 단기간 증시가 방향성을 탐색하며 상승을 모색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험 회피 선호 심리가 커졌던 7월이지만, 긍정적인 시그널도 포착됐다. 필자가 예상한 시점보다 빠르게 (+)실질정책금리 국면 전환이 나타났다. 7월 발표된 6월 CPI와 PCE 결과는 이란 전쟁 휴전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월보다 커지면서, 정책금리를 하회했다. 향후 물가 오름폭 둔화와 금리 안정을 도모하는 환경 조성과 증시 방향성이 상승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따라 8월 발표되는 7월 CPI(12일)와 PCE(26일) 결과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올해 5월 발표된 4월 PCE가 정책금리를 하회하기 시작하고 1달 정도의 시차 후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8월 가장 주시해야 하는 변수이다. 증시 하락 후, 상승을 도모하는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 2달 이상의 연속성이 중요해, 지난달에 이어

**[투자전략] 6~7월의 증시 변동성 타개를 위한 전제조건. 미국-이란간 종전 MOU 복원. 그래야만 펀더멘탈이 변동성 축소 역할에서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역할로 전환. 동 조건 부합 시, 4/4분기를 염두에 둔 비중확대 기회 탐색 필요**

8월 이를 연속적으로 확인할 경우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심리가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다. 7.29일 미국 증시는 7월의 최저점까지 떨어져 위험 선호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지만, 7.30일부터 미국-이란 간 종전 MOU 재개 기대감이 증시에 강하게 반영되면서 8.4일부터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올해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증시의 방향성을 좌우했던 위험 요인이 이란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중동 지정학 리스크 완화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국 증시 흐름은 8월 전세계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이다. 미국의 2/4분기 어닝시즌 동안 알파벳, MS, 아마존 실적을 통해 AI 과잉 투자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던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특히 아마존을 통해 AI 투자확대로 자본지출이 늘어나고 잉여현금흐름이 감소하지만,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가 확인되면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다소 해소된 점이다. 시장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변수들의 긍정적 시그널 발산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 미국 증시 흐름은 글로벌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이다. 단 중동 지정학 리스크 완화가 절대적이다

## 부동산

배상영 Ph.D.  
sangyoung.bae@daishin.com

# 부동산 세제개편 영향: 늘어나는 매도물량만큼 줄어들 임대물량

- 핵심: ① 실거주강화, ② 공제한도제한, ③ 양도세 혜택 조기일몰
- 영향: 실거주 강화로 고가시장 임대료 상승 지속, 40 억원 이상 주택 양도/보유 세부담 증가, 전반적인 매도물량 출회 가능성 있음
- 한계: 임대 공급/운영의 체계/주체/자금유입 유도하는 개편 부재

**세제개편 방향: 종부세/양도세 중심으로 초고가 부담증가, 실거주강화**

**종부세:** 30 억원대 초반부터 세부담 증가, 고가일수록 증가폭 커지는 구조로 개편 (1 가구 1 주택 실거주). 공제에서도 거주요건 강화 및 한도 설정. 비거주자 페널티 부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장기거주공제로의 전환과 공제금액 제한이 핵심. 현재는 10 년 거주 시 양도차익이 커져도 실효세율 9% 수준이나, 개편이후에는 양도차익 클수록 실효세율이 상승하는 구조

**그 외:** 주임사 물량의 양도세 혜택 조기종료, 지방 이전 1 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혜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및 단계적 제도 개편 포함

**핵심변화: 실거주강화, 공제한도설정, 주임사 등 혜택 조기일몰**

시장에 영향을 미칠 핵심변화는 (1) 실거주 강화, (2) 종부세/양도세 공제한도제한으로 초고가주택 부담강화(양도세, 보유세), (3) 주임사 등 양도세 혜택 조기일몰

**실거주강화:** 고가주택의 자가거주 전환이 늘면서 임대 공급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초고가 지역 전월세 물량감소 및 가격상승세 강화는 인접 고가 지역 전월세 강세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세제상 실거주강화=시장 내 임대물량 감소)

**공제한도설정:** 종부세 공제율이 높은 가구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고, 양도세 공제한도 설정으로 40 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매도 유인 확대. 교환이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현행 세제에서 양도세 정산하려는 거래도 증가할 것

**주임사 등 혜택 조기일몰:** 향후 2-3 년간 물량 출회 가능성 높아지며, 매매시장 상승세 둔화에 기여하나 임대주택 감소로 임대시장 상승 압력 높일 것

**시장 영향 및 한계: 매매물량 증가할 수 있으나, 전월세 상승도 가속화**

**영향:** 매도물량 증가(① 세제강화로 인한 고가주택 매도 물량, ② 주임사 혜택 조기일몰로 전반적인 매도 물량 증가)로 매매시장 하방 압력 확대 전망. 영향은 중저가보다는 초고가 시장에서 클 것으로 예상. 반면 실거주 강화로 임대물량 감소하여 서울 전반의 임대시장 강세 지속/확대 전망. 이번 **세제개편이 잘 작동할수록 매매 물량은 증가하는만큼, 임대물량은 감소해, 매매시장 둔화와 전월세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 형성**. 현재도 전세가율이 높은 서울 중저가 시장은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높고 오히려 견조한 흐름 전망

**한계:** 개편 세제에서 다주택자를 대체해 임대주택 공급을 할 운영 주체가 부재한 것은 한계. 단기 공급이 가능한 非아파트를 중심으로라도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주체(기관투자자, 공공)를 제시하고 투자/대출 자금을 유도하는 세제 완화/규제완화를 병행할 필요. 이러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시장 안정 효과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은 향후 전월세 상승 등 부작용의 크기와 여론을 확인하면서, 개편 세제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

**시장 전망:** 부동산 공급정책 발표 후 시장외부 요인(금리, 소득증가) 고려하여 제시 예정

# 방위산업

최정환 CFA jeonghwan.choi@dashin.com

투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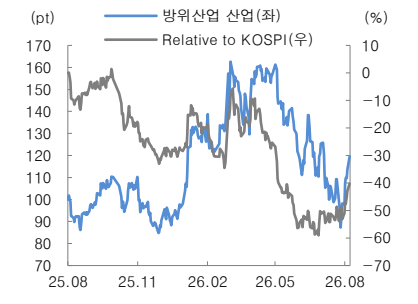
##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 Rating & Target

| 종목명       | 투자의견 | 목표주가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Buy  | 1,720,000원 |
| LIG D&A   | Buy  | 990,000원   |
| 한화시스템     | Buy  | 103,000원   |
| 한국항공우주    | Buy  | 186,000원   |
| 현대로템      | Buy  | 240,000원   |

| 주가수익률(%) | 1M   | 3M    | 6M    | 12M   |
|----------|------|-------|-------|-------|
| 절대수익률    | 8.8  | -16.8 | -1.9  | 29.2  |
| 상대수익률    | 29.2 | -0.9  | -17.5 | -34.1 |



# 조달 방식의 변화 그리고 방위산업의 변곡점

- 여전히 유효한 투자포인트, 저렴해진 Valuation
- 앙카라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된 공동조달 및 생산
- 방위산업체 멀티플 리레이팅을 전망

## 여전히 유효한 투자포인트, 저렴해진 Valuation

26년 길어지는 수주 공백기 속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주가 부진 지속되었으나 지정학적 관점에서 유럽의 재무장, 각 국가들의 방위산업 자립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위기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변함없으며 특히 현대전에서 고가의 유인 무기체계보다 저가·대량 양산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우수한 제조업 역량을 갖춘 국내 방위산업체들에게 긍정적인 환경 조성. 산업은 성장하며 기업의 기초체력은 좋아지고 있는 반면 주가는 저렴해진 상황으로 적극 매수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

## 앙카라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된 공동조달 및 생산

회원국 간 생산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MaaS(Manufacturing as a Service) 방식의 공동 조달 및 생산 체계가 제안됨. 이는 나토 방위계획절차(NDPP)와 조달 플랫폼(NFDI) 그리고 회원국간 생산설비 네트워크인 'NATO Engine'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회원국이 자국 내 별도 설비 투자 없이 타국의 유향 생산 시설을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우리나라 정부 또한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에 돌입하여 나토 지원조달청(NSPA)이 추진하는 역내 공동조달 및 MRO 시장에 주계약자 또는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발판을 준비 중

## 방위산업체 멀티플 리레이팅을 전망

국가간 공동 조달 및 생산 체계 구축은 B2G 수주산업이 지닌 수주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방위산업체들의 실적 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 해외 거점 생산 시설을 보유한 국내 체계종합 기업들은 역내 생산 및 MRO 서비스 제공자로 진입하고, 부체계 기업들은 나토 공급망(Tier 2-3)에 참여함으로써 신규 설비 투자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핵심 시장이었던 기존 동유럽·중동 중심에서 북미 및 서유럽으로 접근 가능한 시장이 확대되며 멀티플 리레이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판단

# 비에이치 (09046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1,000

하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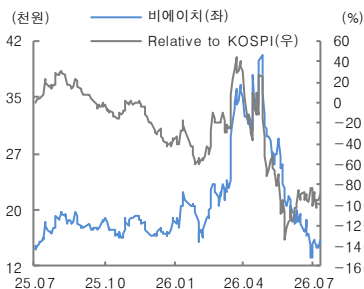
15,510

(26.08.1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             |                                   |
|-------------|-----------------------------------|
| KOSPI       | 6299.66                           |
| 시가총액        | 523십억원                            |
| 시가총액비중      | 0.01%                             |
| 자본금(보통주)    | 17십억원                             |
| 52주 최고/최저   | 40,200원 / 13,100원                 |
| 120일 평균거래대금 | 172억원                             |
| 외국인지분율      | 19.04%                            |
| 주요주주        | 이경환 외 6 인 21.60%<br>국민연금공단 13.35% |

| 주가수익률(%) | 1M    | 3M    | 6M    | 12M   |
|----------|-------|-------|-------|-------|
| 절대수익률    | -20.1 | -51.8 | -22.3 | 1.3   |
| 상대수익률    | -5.2  | -42.7 | -34.6 | -48.4 |



## 이익 성장은 변화 없다! 삼성의 로봇 사업에 참여!

- 3Q26 영업이익은 371억원(371% qoq)으로 실적 개선 전망
- 삼성 및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로 수혜 예상, 실적 확대 구간에 진입
- 삼성 및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 대상으로 공급 추진, 밸류에이션 저평가

###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41,000원 하향

2026년 2Q 매출(4,142억원 6.3% yoy/11.5% qoq)은 컨센서스(4,085억원)대비 상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79억원(-50.8% yoy/-26.0% qoq)으로 컨센서스 하회. 그러나 2Q 영업이익 둔화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 이익 개선의 방향과 신성장 사업의 추진(로봇, 휴머노이드 분야로 사업 다각화 등) 결과는 구체화되고 있음. 밸류에이션의 저평가(PCB 업종 중 P/E 5.1배, P/B 0.6배(2026년 가장 낮은 수준)) 영역에 위치,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는 41,000원(2027년 주당순이익 x 목표 P/E 14.5배, 실적호조 시기에 평균)으로 하향. 현 시점에서 비중확대 전략은 유지, 투자포인트는

### 3Q 영업이익은 371%(qoq) 증가 추정, 로봇 사업의 구체화 예상

① 2026년 영업이익 개선의 방향은 명확하다고 판단, 3Q에 성수기 진입 및 영업이익 개선이 본격화, 영업이익은 3Q 371억원(371% qoq/8% yoy) / 4Q 393억원(5.9% qoq/36.4% yoy)으로 증가 추정. 2026년 3Q, 애플의 신규 스마트폰인 폴더블형 매출이 반영, 4Q에 본격화될 전망.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Z폴드8(2026년 첫 출시, 내부 디스플레이 4:3)의 수요가 예상을 상회한 점도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기여. 또한 애플의 첫 폴더블폰(4:3 크기,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8 유사)에 관심 증대, 판매 호조로 연결되면 4Q26 실적에 추가적인 상향도 상존. 삼성전자의 갤럭시Z폴드8의 예약 비중은 시리즈 중 약 70%로 차지,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체 시리즈 판매 호조로 연결, 비에이치가 디스플레이향 R/F PCB 공급 중. 애플의 폴더블폰 판매는 약 800만대를 예상하나 추가적인 수요를 동반하면 1천만대까지 확대 가능성도 존재

② 로봇 및 휴머노이드 영역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 2027년 매출 확대를 예상. 관계사인 디케이티와 협력이 동반되면서 삼성전자 및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에 부품 공급 및 신규 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비에이치는 무선충전모듈 및 장 축의 R/F PCB를 공급, 디케이티는 최종적인 SMT 공정(부품을 실장)을 담당하면서 통합 솔루션 형태의 공급망을 구축. 최종 고객사 입장에서 공정 관리 및 공급 업체의 단순화, 원가관리에 유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최근 삼성전자내 로봇 및 휴머노이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역할이 중요, 로봇 및 휴머노이드에서 정보 전달, 상대방의 대화 인식을 초기에 디스플레이(OLED)에 의존. 비에이치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전략적인 관계(핵심 공급 업체, 삼성 및 애플, 중국의 고객을 확보)를 바탕으로 중추적인 공급 역할을 담당 예상

# 심텍 (22280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7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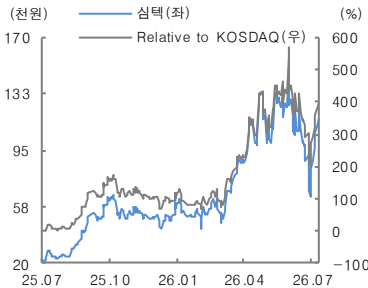
115,900

(26.08.1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             |                                    |
|-------------|------------------------------------|
| KOSDAQ      | 854.47                             |
| 시가총액        | 4,342십억원                           |
| 시가총액비중      | 0.75%                              |
| 자본금(보통주)    | 19십억원                              |
| 52주 최고/최저   | 157,300원 / 23,050원                 |
| 120일 평균거래대금 | 787억원                              |
| 외국인지분율      | 9.85%                              |
| 주요주주        | 심텍홀딩스 외 5 인 32.20%<br>삼성자산운용 6.90% |

| 주가수익률(%) | 1M   | 3M   | 6M    | 12M   |
|----------|------|------|-------|-------|
| 절대수익률    | -5.5 | 0.1  | 121.2 | 316.2 |
| 상대수익률    | -7.4 | 41.5 | 188.7 | 294.1 |



## 3Q&4Q, 소캠2 매출로 이익 모멘텀이 강하다~

- 영업이익은 2Q26 629억원(239% yoy)으로 컨센서스 상회, 호실적
- 영업이익은 3Q26 767억원(22% qoq) 추정, 이익 확대 구간에 진입
- 소캠2 매출 확대, MSAP 및 비메모리 패키지 비중 증가, 최선호주 유지

###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170,000원 유지

2026년 2Q 영업이익은 628.9억원(1,035% yoy/359% yoy)으로 종전 추정(465억원)과 컨센서스(473억원)를 각각 35%, 33%씩 상회 등 호실적을 기록. 매출은 5,146억원(51.0% yoy/21.8% qoq)으로 컨센서스(4,669억원) 상회. MCP 등 반도체 패키지에서 고부가(MSAP) 비중 증가, 메모리 모듈 부문에서 소캠2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 금 가격 하락 등 원부자재 부담의 감소로 전사 영업이익률은 12.2%로 9%p(qoq) 확대

2026년 3Q 영업이익은 767억원으로 519%(yoy/21.9% qoq) 증가 등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 구간에 진입 전망. 반도체 PCB 업체 중 2026년 하반기에 영업이익의 증가(qoq) 추정이 가장 높음. 2026년 및 2027년 주당순이익(EPS)을 종전대비 각각 25.5%, 40.8%씩 상향. PCB 업체 중 최선호주 유지.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170,000원(2027년 EPS X 목표 P/E 24.8배(실적 호조 상단) 유지. 투자 포인트는

### 2026년 소캠2 매출 확대, 비메모리(FC CSP 등) 및 MSAP 비중 증가

① 2026년 하반기 영업이익은 1,592억원으로 상반기대비 108% 증가 추정, 이익 모멘텀이 부각된 시기로 판단. 수익성 호조는 1) 소캠2 매출이 본격화, 2026년 연간 소캠2 매출은 1,414억원으로 2025년(45억원)대비 큰 폭의 성장 추정, 하반기 추정 매출은 1,049억원으로 3Q26에 본격적인 공급 예상 등 전체 성장과 수익성의 호조를 견인.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이 본격적인 양산으로 소캠2 관련한 모듈 공급이 증가 과정에 있음

② 메모리모듈 중 금의 가격 하락이 원가개선에 연결, 메모리모듈의 원가 중 금의 비중이 제일 높은 수준. 금의 가격은 2026년 1월 28일(최고가격) 대비 8월 10일 현재 약 20% 하락. 매출 증가와 맞물리면서 2026년 하반기에 수익성 기여

③ 장기적인 성장 축인 비메모리(FC CSP, SIP) 패키지 매출이 2026년 2Q에 763억원으로 23.5%(qoq) 증가. 3Q도 4.5%(qoq) 증가 추정 등 2026년 매출은 2,969억원으로 46.7%(yoy) 증가(추정)하여 안정적인 수익성 토대를 마련 전망. 소캠2의 매출 본격화, 고부가 제품인 비메모리 패키지의 매출의 고성장, 그리고 MSAP 제품군의 비중 확대로 연간 영업이익은 2026년 2,358억원(1886% yoy), 2027년 3,220억원(36.6% yo) 증가하여 수익성 호조 구간에 진입 전망. MSAP 비중은 패키지 매출 중 80%(2Q26) 차지

(단위: 십억원 %)

| 구분   | 2Q25 | 1Q26 | 2026 |     |         |               | 3Q26 |     |       |
|------|------|------|------|-----|---------|---------------|------|-----|-------|
|      |      |      | 직전추정 | 잠정치 | YoY     | QoQ Consensus | 당사추정 | YoY | QoQ   |
| 매출액  | 341  | 422  | 450  | 515 | 51.0    | 21.8          | 467  | 545 | 46.1  |
| 영업이익 | 6    | 14   | 46   | 63  | 1,034.5 | 358.7         | 47   | 77  | 519.0 |
| 순이익  | -19  | 15   | 39   | 45  | 흑전      | 206.9         | 35   | 61  | 804.2 |

자료: 심텍,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롯데렌탈 (08986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3,000

상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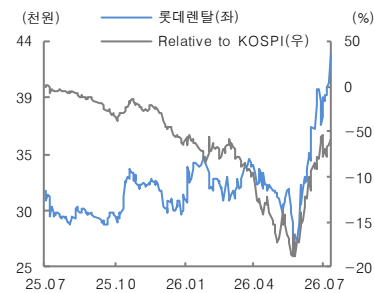
42,800

(26.08.10)

가타서비스업종

|             |                                      |
|-------------|--------------------------------------|
| KOSPI       | 6299.66                              |
| 시가총액        | 1,554십억원                             |
| 시가총액비중      | 0.02%                                |
| 자본금(보통주)    | 183십억원                               |
| 52주 최고/최저   | 42,800원 / 27,300원                    |
| 120일 평균거래대금 | 21억원                                 |
| 외국인지분율      | 7.29%                                |
| 주요주주        | 호텔롯데 외 6 인 61.21%<br>브이아이피자산운용 7.33% |

| 추가수익률(%) | 1M   | 3M   | 6M   | 12M   |
|----------|------|------|------|-------|
| 절대수익률    | 28.9 | 28.7 | 28.9 | 42.0  |
| 상대수익률    | 53.0 | 53.2 | 8.5  | -27.7 |



## 렌탈 경쟁력은 수익성 확대!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

- 2Q26 영업이익은 846억원은 9.6%(yoy)가 증가, 수익성 확대
- 3Q26 영업이익은 933억원으로 10.2%(qoq) 증가 추정
- 렌탈 시장에서 점유율 증가, 중고차 활용으로 수익성 확대

###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53,000원 상향(15.2%)

2026년 2Q 매출은 7,657억원(2.3% yoy/4.8% qoq), 영업이익은 846.4억원(9.6% yoy/1.2% qoq) 증가를 기록, 영업이익은 컨센서스(868억원)대비 소폭 하회하였지만 실질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 회계처리 변경으로 일회성 손실(구매 카드 수수료 17억원) 반영에 기인, 그러나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영업이익은 11.7% 증가했던 것으로 분석. 렌탈부문에서 영업이익은 582억원으로 추정, 32.9%(yoy) 증가 등 장/단기 부문에서 점유율 확대, 중고차 비중 증가로 수익성 구조가 개선

2026년 3Q 영업이익은 933억원으로 10.2%(qoq/4.8% yoy) 증가 추정 등 실적 호조가 지속. 장단기 렌탈 시장에서 점유율 및 중고차 렌탈 비중의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저평가), 그리고 차별화된 모빌리티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치 인정(밸류에이션 상황)으로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목표주가를 53,000원(2027년 변경, 주당순이익 X 목표 P/E 11.7배 적용)으로 상향(15.2%) 및 투자의견은 매수(BUY) 유지

### 2026년 매출은 5.5%(yoy), 영업이익은 13%(yoy) 증가 추정

① 국내 렌탈 시장에서 점유율 1위 및 높은 수익성(2026년 영업이익률 11.5% (+0.8%p yoy) 추정,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2026년 매출 3.08조원(5.5% yoy), 영업이익 3,529억원(13% yoy 추정) ③ 차별적인 종합 솔루션(렌탈+정비+케어+중고차 렌탈 및 매각 + 해외시장 진출)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은 여전히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평가 요인,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를 통해서 주가의 상승이 지속. 2027년 실적 기준으로 P/E 8.8배, P/B 0.9배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으로 판단

② 글로벌 사모펀드(PF) 운운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에서 롯데그룹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지분 61.18%) 인수 추진은 지속으로 판단. TPG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2대 주주인 동시에 미래의 모빌리티 플랫폼(공유경제, 자율주행, 토탈솔루션)에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예상,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대응 등 사업 다각화로 추가 매출 성장을 기대. 기존의 카카오 플랫폼에서 렌탈의 다양한 서비스, 선택적인 편리성, 그리고 중고차 렌탈 및 매각 사업에 시너지 창출도 가능

(단위: 십억원 %)

| 구분   | 2025 | 1Q26 | 2026 |     | 2026  |       |           | 3Q26 |      |       |
|------|------|------|------|-----|-------|-------|-----------|------|------|-------|
|      |      |      | 직전추정 | 잠정치 | YoY   | QoQ   | Consensus | 당사추정 | YoY  | QoQ   |
| 매출액  | 749  | 731  | 771  | 766 | 2.3   | 4.8   | 771       | 790  | 4.2  | 3.2   |
| 영업이익 | 77   | 84   | 89   | 85  | 9.6   | 1.2   | 87        | 93   | 4.8  | 10.2  |
| 순이익  | 30   | 31   | 35   | 20  | -35.0 | -36.8 | 37        | 46   | 16.6 | 131.3 |

자료: 롯데렌탈,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한전KPS (051600)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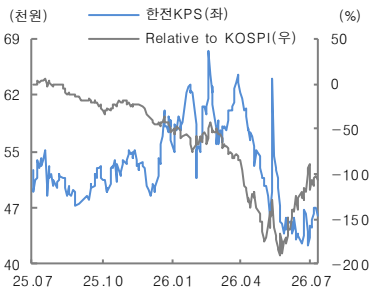
6개월  
목표주가64,000  
유지현재주가  
(26.08.10)

46,100

유틸리티업종

|             |                                     |
|-------------|-------------------------------------|
| KOSPI       | 6299.66                             |
| 시가총액        | 2,075십억원                            |
| 시가총액비중      | 0.03%                               |
| 자본금(보통주)    | 9십억원                                |
| 52주 최고/최저   | 67,500원 / 42,250원                   |
| 120일 평균거래대금 | 120억원                               |
| 외국인지분율      | 9.14%                               |
| 주요주주        | 한국전력공사 외 1 인 51.02%<br>국민연금공단 9.40% |

| 주가수익률(%) | 1M   | 3M    | 6M    | 12M   |
|----------|------|-------|-------|-------|
| 절대수익률    | 0.3  | -21.7 | -20.9 | -12.0 |
| 상대수익률    | 19.1 | -6.8  | -33.5 | -55.2 |



## 지나간 실적보다 앞으로의 회복을 바라볼 때

- 2H26 성장성 회복(12차 전기본, K원전 수출) 모멘텀, 배당수익률 5.0%
- 2Q26 영업이익 436억원(-33.5% YoY), 컨센서스 하회
- 3Q26 영업이익 505억원(+6.3% YoY), 4Q26 571억원(+197.6%) 전망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4,000원 유지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4,000원을 유지. 2Q26 기존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 그러나 1) 3분기 이후 실적 개선, 2) 12차 전기본에서 한국전력그룹의 원전 및 LNG, 양수 발전, 송전망의 대규모 증설 반영, 3) 한국형 원전 노형의 베트남, 중동 진출 확대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성 회복 기반 마련, 4) 배당 매력(2026년 예상 DPS 2,300원, 현재주가 기준 배당수익률 5.0%) 등이 기대

2026년 연내 체코 두코바니 5, 6호기 정비 수주('28~'29년부터 매출 발생 시작 예상), 2027년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자로 압력관 교체 및 설비개선 공사(수주금액 4,850억원, '27년 9월~'30년 6월)의 사전작업 매출 발생 시작 등도 긍정적 요소임

### 2Q26 영업이익 436억원(-33.5% YoY), 컨센서스 620억원 하회

2Q26 매출액 4,379억원(-3.5%, 이하 YoY), 영업이익 436억원(-33.5%), 영업이익률 10.0%(-4.5%p)를 기록.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620억원 하회. 원전 계획예방정비 매출 부진, 해외 및 대외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 단기노무원 채용 등으로 수익성이 하락했음. 원전정비 부문은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 승인 심사 호기 수 증가로 계획예방정비 수주금액의 매출인식이 장기간에 걸쳐 분산되었음(평균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 대외정비 부문은 동두천 드림파워 정비 종료, 포스코 포항 성능개선 공사 중단 등이 발생했으며, 해외정비 부문은 화력발전 변동공사 매출이 감소했음

### 3Q26 영업이익 505억원(+6.3% YoY), 4Q26 571억원(+197.6%) 전망

3Q26 매출액 3,994억원(+1.5%, 이하 YoY), 영업이익 505억원(+6.3%), 영업이익률 12.6%(+0.6%p) 예상. 4Q26 매출액 4,580억원(+3.9%), 영업이익 571억원(+197.6%), 영업이익률 12.5%(+8.1%p)를 전망. 3Q26부터 다수 원전 계획예방정비 배치 마무리, 4Q26 새울 3호기 가동(새울 4호기는 2Q27 가동)에 따른 시운전정비 및 경상정비 매출 발생 등 고마진 원전정비 매출 회복. 4Q25 일시적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 기대

(단위: 십억원, %)

| 구분   | 2Q25 | 1Q26 | 직전추정 | 잠정치 | 2Q26  |      | 3Q26      |      |     |      |
|------|------|------|------|-----|-------|------|-----------|------|-----|------|
|      |      |      |      |     | YoY   | QoQ  | Consensus | 당사추정 | YoY | QoQ  |
| 매출액  | 454  | 352  | 459  | 438 | -3.5  | 24.3 | 448       | 399  | 1.5 | -8.8 |
| 영업이익 | 66   | 37   | 67   | 44  | -33.5 | 17.8 | 62        | 50   | 6.3 | 15.8 |
| 순이익  | 51   | 29   | 54   | 38  | -24.8 | 30.2 | 51        | 43   | 0.3 | 11.8 |

자료: 한전KPS,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